

대우건설 본입찰 해외 3곳 참여

금호아시아나 연내 유동성 해결 가속도

생명·터미널 등 매각 4조이상 자금 확보

대우건설 인수전이 해외 투자자 3곳으로 압축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에 마감된 대우건설 본입찰에 해외 투자자 3곳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입찰에 참여한 3곳은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인 아부다비투자청(ADIC)이 참여하는 '자베즈 컨소시엄'과 미국계 부동산개발업체인 'AC캐피탈', 러시아 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으로 알려졌다.

이들 투자자들은 당초 선정된 인수후보(쇼트 리스트) 4곳 중 3곳으로

전략적 투자자(SI)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인수후보로 거론됐던 사우디 투자회사인 'S&C인터내셔널'은 입찰을 포기했으며 추가로 관심을 보였던 유럽계 투자자도 별도의 인수주체로 참여하지 않았다.

본입찰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제시한 인수가격은 주당 2만~2만4천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의 현 주가는 1만4천원대로,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얹어 주당 2만원에 50%+1주를 매각할 경우 예정된 풋백옵션 행사 시기를 잘 넘길 경우 위험성 위기에서 벗어나게

으로 예상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매각주간사인 산업은행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20일이나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대우건설 매각을 위한 본입찰이 마감되면서 1년이상 지속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유동성 문제도 조만간 풀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호아시아나가 대우건설과 다른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해 연내에 4조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건설 매각작업은 앞으로 1개

월 가량 가격협상을 통해 마무리 될 전망이다. 금호아시아나의 유동성 위기 대우건설 풋백옵션 행사로 인한 손실에서 비롯된 만큼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풋백옵션 행사 시기를 잘 넘길 경우 위험성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풋백옵션 해결을 위해선 4조원 가량의 자금이 필요한데 대우건설 본입찰에 참가한 투자자들이 제시한 인수 가격을 감안하면 대우건설 매각으로 3조원 이상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1조원은 금호생명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자산 등을 매각해 조달할 계획으로 이미 금호생명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지분에 대해서는 각각 4천억원, 2천705억원에 매각하기로 인수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민유성 산은금 융자주 회장이 필요하다면 직접 지원 등을 통해 금호아시아나의 유동성 문제를 돋쳤다고 밝힌 것도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대한항공 기내식 '글로벌 어워드'

대한항공은 18일 기내식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팩스 인터내셔널'에 전 세계 항공사 및 기내식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장 뛰어난 성과를 낸 1개 업체를 선정한 발표에서 '글로벌 어워드'(대상)를 받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해 89억 등 소주업체 '과징금 폭탄'

공정거래위 "11개社 가격담합"

업체 "국세청 행정지도 따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출고가격 담합 협의를 받고 있는 소주업체들에 2천 억 원대 과징금 부과를 통보하면서 보해 등 소주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한편 세법달갑에 따르면 전국 1천 787개 상장사의 시가총액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상장사의 점유율이 84.1%를 차지한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각각 0.1%로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비중이 가장 낮았다.

광주(24개)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1조2천618억원, 전남(12개)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1조3천587억원으로 집계됐다.

업체 1위인 진로의 경우 1천162억 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됐고, 지역 소주업체인 보해는 89억원의 부과 통보를 받았다. 이와 두산(246억 원), 대선주조(206억 원), 금복주(172억 원), 무학(114억 원), 선양(102억 원), 롯데(99억 원), 한라산(42억 원), 충북(19억 원), 하이트주조(12억 원) 등도 과징금 규모가 커졌다.

이의신청 기간 및 전원회의를 거치면서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회사별로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 납부가 불가피한 전망이어서 소주업체의 반발이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해 조정했다는 것이다.

소주업체들은 주정업체에서 공급받는 주정 가격과 납세 병마에 가격 등이 같고 인건비 등 일부 비용만 차이가 있어 가격 차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특히, 연간 순이익의 2배가 넘는 89억 원이 부과된 보해는 "억울하다"는 분위기다. 보해 측은 "향후 이의신청 기간에 충분히 설명해 이해시키겠다"고 밝혔다.

반면, 공정위는 국세청이 행정지도를 통해 명시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업체들이 답합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다음달 전원회의를 통해 소주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 수를 확정할 방침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국세청, 해외 은닉재산 추적 전담반 설치

국세청에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역외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전담센터가 설치됐다.

국세청은 18일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전담센터는 국세청 차장 직속으로 기존의 해외 은닉재산 전담 테스크포스(T/F)를 흡수해 분석팀장을 비롯

한 3개반 15명의 과(課) 단위 별도 조직으로 설립됐다. 전담센터는 앞으로 해외투자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자산가들의 역외탈세 행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해외 부동산·기업의 등기부, 국내외 기업의 재무자료 데이터베이스(D/B), 기업 공시자료 등 공개된 정보에 대한 분석작업을

강도 높게 펼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 과세당국과 조세범에 대한 정보교환 등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 사례 발굴 및 국제적 공동체제 구축에도 나서기도 했다.

분석 대상은 주로 기업의 대주주가 국외투자를 거친 해외 현지법인에 거액을 송금한 뒤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고 바로 유출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녀 유학경비로 유용하는 행위 등이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상장사 3분기 실적 악화

금호계열사 등 7곳 적자... 작년보다 매출·순익 감소

국내 상장사들의 실적은 1년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나 광주·전남지역 상장사들의 실적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국 최하위 수준인 0.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12월 결산법인

22개 사의 3분기(누적) 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등 모든 실적이 지난해 3분기보다 악화됐다.

올해 매출액은 5조933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94% 감소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875억원으로 전년 대비 -77.77%(3천61억원)나 급감했고 순이익은 -3천435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지역 상장사들의 매출액 증가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6.34%포인트 낮고 순이익 증가율도 3.01%포인트 낮은 것이다.

지역 상장사들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1.72%로 전년 동기대비 5.47%포인트 낮아졌다. 1천원어치를 팔아 17.2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셈이다.

한편 세법달갑에 따르면 전국 1천 787개 상장사의 시가총액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상장사의 점유율이 84.1%를 차지한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각각 0.1%로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비중이 가장 낮았다.

광주(24개)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1조2천618억원, 전남(12개)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1조3천587억원으로 집계됐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SPC그룹, 고풍 찹쌀 연간 600t 규모 수매

도너츠 원료로 사용

베이커리 전문업체인 SPC그룹은 연간 600t 규모의 찹쌀을 고흥농가에서 수매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SPC그룹은 이를 위해 고흥군과 농산물 공급·판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이날 체결했다.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삼립, 샤니 등 베이커리 전문 계열사를 거느린 SPC그룹은 고흥에서 사들인 찹쌀을 계열사 브랜드의 원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부터 해남, 강진, 하동 등 10여 개 지역에서 계약재배 방식으로 우리밀을 수매하고 있다.

지역 상장사들의 매출액 증가율은

코스피지수	1,603.97 (+17.99)
코스닥지수	472.54 (+0.59)
금리(국고채 3년)	4.27% (+0.03)
원·달러 환율	1,153.00원 (-1.1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영업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품질좋은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경매에 관한 모든 상품
062)236-3400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전화 062)236-3400

FAX 062)236-3401

E-mail assetkorea@naver.com

홈페이지 http://www.assetkorea.com

인터넷판수 062)236-3400

인터넷판수 062)236-3401

인터넷판수 062)236-3402

인터넷판수 062)236-3403

인터넷판수 062)236-3404

인터넷판수 062)236-3405

인터넷판수 062)236-3406

인터넷판수 062)236-3407

인터넷판수 062)236-3408

인터넷판수 062)236-3409

인터넷판수 062)236-3410

인터넷판수 062)236-3411

인터넷판수 062)236-3412

인터넷판수 062)236-3413

인터넷판수 062)236-3414

인터넷판수 062)236-3415

인터넷판수 062)236-3416

인터넷판수 062)236-3417

인터넷판수 062)236-3418

인터넷판수 062)236-3419